

CSU Monthly 2026년 5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CHOSUN
UNIVERSITY

- 4월 첫째 주: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조선대서 2026년 제1차 협의회 개최
- 4월 둘째 주: 조선대, 에너지 위기 속 '자발적 절약 캠페인' 나서
- 4월 셋째 주: 조선대 캠퍼스, 그림이 되다... 개교 80주년 기념 '어반스케치' 행사 개최
- 4월 넷째 주: 조선대-KAI, 2026 항공우주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시융합 과정' 최종 선정
- 5월 첫째 주: **조선대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촉식 개최**

조선대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촉식 개최

개교 80주년 맞은 대학의 역사 정립을 위한 장정 돌입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조선대학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22일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춘성 총장의 감사 인사와 함께 편찬위원회 고문단, 집필위원, 감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으며, 향후 위원회는 자료 수집, 구술사 정리, 집필 및 감수 과정을 거쳐 80년사 발간을 본격 추진한다.

조선대는 1946년 7만 2천여 시민의 뜻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 이번 80년사 편찬을 통해 대학의 역사적 성과와 민주·인권의 가치를 집대성하고 이를 미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김춘성 총장은 “80년의 역사를 지나온 오늘의 조선대학교가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편찬위원회 김형중 위원장은 “조선대학교 80년의 역사를 정리하는 매우 엄중한 과업에 뜻을 함께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대학교가 걸어온 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그 성과와 가치를 미래 세대에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80년사 편찬을 통해 대학의 역사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민립대학의 가치와 비전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80년사 편찬위원회 명단

위 원 장: 김형중

고 문 단: 김덕균, 김종중, 박열, 백수인, 정해만

집필위원: 김차준, 노영기, 박창희, 안병철, 지병근,
이영란, 차인배, 최만원

감수위원: 김순의, 이철갑, 안현철, 정권철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장미로 기억하고 참여로 잇다

80년의 역사 '공간·예술·참여'로 이어져

개교 80주년을 맞은 조선대학교는 지난 80년의 시간을 기념하고,
나아가 대학의 역사와 가치를 현재의 공간과 활동으로 잇고 있다.
80년사 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기록 작업과 함께,
캠퍼스 기반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억을 공유하고 참여와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미원에 '광주5·18·대동·소녀' 꽃으로 피어나다



조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캠퍼스 장미원 내에 '민주인권동산(CSU Humanity Rose Garden)'을 조성하고, 4월 28일 동산 제막식과 장미 명명식을 동시에 거행했다.

조선대는 ▲5·18 민주동산 ▲조선대학교 민주열사동산 ▲소녀동산(2019년 조성) 3개의 동산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민주인권동산(CSU Humanity Rose Garden)'으로 명명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열사들의 신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못다한 꿈을 캠퍼스 안에 항구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날 동산 제막과 함께 전남대학교 한태호 교수가 직접 육종해 헌정한 장미 2품종의 이름도 명명됐다. 5·18 민주동산에는 '광주5·18(Gwangju 5·18)', 민주열사 추모동산에는 '대동(Daedong)'이 조민혁 총학생회장의 낭독으로 새 이름을 얻었고, 소녀동산에는 2019년 명명된 '소녀'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된다.



조선대 캠퍼스, 그림이 되다... 개교 80주년 기념 '어반스케치' 행사 개최



조선대학교는 4월 12일 교내 주요 스팟 12곳에서 '조선대를 그려봄'을 주제로 '개교 80주년 어반스케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선대학교 재학생과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 공간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예술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정문, 본관, 설립기념탑 등 대학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12개 스팟에서 건축물과 자연경관을 자유롭게 스케치하며, 캠퍼스의 역사성과 일상의 풍경을 각자의 시선으로 재해석했다. 완성된 작품은 이후 작품집으로 제작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의 뜻으로 세워진 민립대학 조선대학교의 역사와 공간을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이 직접 예술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HUMANITY
BEYOND the FUTURE
휴머니티, 혁신의 미래 \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선포 “함께 도약하는 100년의 길”



조선대학교가 4월 23일 총장실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모금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며 민립대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기부 문화를 본격화했다. 캠페인은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 ▲CSU 장미로드 ▲One 4 Your Chosun 총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CSU Again 7만2천 발전기금’은 1946년 설립 당시 7만 2천여 명의 설립동지가 모은 숭고한 민립 정신을 계승해, 구성원과 동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2의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글로벌 리더 육성과 대학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CSU 장미로드’는 조선대학교의 장미원을 활용한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다. 기부자의 이름을 장미원 산책길에 새겨

그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 2001년 동문 기부로 시작된 장미원의 전통과 의미를 이어가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One 4 Your Chosun’은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액 기부 캠페인이다. 기부자는 월 1만 원의 기부를 통해, 1,000원으로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학생드림(Dream)’ 중 하나를 선택해 후원할 수 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30만 동문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연결되는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래 100년을 향한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